

연사!

99년 여성농민운동의 방향과 과제

1. 현시기 여성농민운동의 방향

전여농은 1)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역사적 대의에 복무하고 2)그를 위해 식량자급 실현과 농업을 지켜내기 위한 일에 총력을 다하며 3)비교열위로 늘 소외되어왔던 농업임에도 포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경제적, 심리적인 이유와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인 가치관과 법·제도적인 차별, 차별적 노동시장 등으로 인해 여성농민의 노동력이 주변화되는 현실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토대로 여성농민의 지위확보와 노동가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여성농민운동은 노동과 생활, 그리고 운동이 밀접하기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농민의 삶의 조건으로부터 출발한다. 현재 여성농민은 전체 농업노동력의 52%를 차지하고 점차 농업노동력 구조가 노령화, 여성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지위와 역할은 법·제도와 농업정책, 여성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여농은 92년 '여성농민개혁안'을 통해 여성농민의 농업생산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고, 여성농민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 연속으로 여성농민의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 마련,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실현과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마련 등을 주요 이슈화하면서 여러 가지 투쟁들을 벌여왔다. 또한 식량자급과 농가부채 해결,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확대 등 전체 농업보호 및 발전을 위한 사안을 당면투쟁으로 결합시켜왔다.

전여농은 현재 준비위를 포함한 전국 9개도 조직이 건설되었고 지역단위별로 조직체계와 유형의 차이는 있겠으나 자주적 여성농민 조직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마을-면-군-도-전국이라는 전국적인 대중조직체계의 틀을 갖추고 있다. 현재 내부적으로는 조직강화를 위한 활동과 노동과 생활, 운동속에서의 여성농민의 주체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벌여나가고 있다.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이하면서 전여농은 사회변혁운동의 주체로서, 그리고 농업발전과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명실상부한 대안세력으로서 현시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농민운동은 여성농민의 지위와 역할이 주변화되고 차별화되는 모든 조건을 극복한다는 목표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여성농민의 본질적인 문제가 결국은 사회공공체 실현보다는 경제제일주의에 입각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농민이면서 동시에 여성이라는 조건이 서로 상승작용하여 여성농민의 질곡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성농민운동은 항상 전체 농업의 핵심사안을 여성농민운동의 고유한 자기과제로

인식하고 그와 함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농민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시기 여성농민운동의 방향은 식량자급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여성농민의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대내외적 활동으로 집약된다. 식량자급 실현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WTO차기농산물 협상에 적극적인 준비로 대응하여야 하며 계층별·지역별·품목별 형평성을 고려한 직접지불제 확대 실시와 가족농 중심의 농정개혁을 통해 대다수 중소농의 안정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농민의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농민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마련과 효율적인 여성농민정책의 집행을 위한 중앙-지자체의 통일적인 업무체계, 즉 전담부서의 설치 등을 요구해내야 하고,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발작물 직불제 실시 등을 요구해 내야 한다.

2. 현시기 여성농민운동의 과제

이러한 방향 하에서 여름농활 시기와 하반기 투쟁시기를 연결하는 주요 이슈는 시기적으로 사회쟁점화할 수 있는가, 농업발전과 농민의 권익실현에 부합되는가, 현장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참여를 높일 수 있는가, 조직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가,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올해 여성농민운동의 주요과제는 1)WTO 차기농산물 협상 대응 2)농가소득 지지와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직접지불제 확대 실시로 집중한다.

가. WTO 차기농산물 협상 대응

1) 배경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이제 전 세계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자본과 무역의 전면적인 자유화 국면으로 진전되고 있다.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라 농산물 시장의 전면개방과 쌀수매 등 가격지지 정책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의해 생산기반 및 자본력에 있어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부문의 상대적인 소득감소와 식량자급률의 하락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구조개선을 목표로 1994년에 '농어촌 발전대책과 농정개혁 방안'을 확정, 42조원 규모의 1단계 '농업구조개선대책'을 시행하여 98년까지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 2004년까지 6년에 걸친 2단계 '농업·농촌투융자 사업'으로 45조원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농업은 비교열위산업으로 취급되어 오는 과정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생산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고, 기존 농정의 방향이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짐으로

인해 규모화가 어려운 지역이나 대다수 중소농의 소득감소 및 생산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단계 투융자사업도 가족농을 중심으로 하는 전업농을 육성한다고는 하지만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농업의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더구나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업부문에 대한 국내보조 감축 요구가 농산물 수출국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됨으로써 우리는 국내농업의 구조개선이라는 과제에 앞서 식량안보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협상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2) 협상의 여건 및 전망

오는 11월말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될 제 3차 WTO각료회의에서 3년간 예정된 차기 농업협상의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1997년부터 WTO 농업위원회에서 '분석 및 정보교환(AIE)' 작업이 현재까지 10차례의 비공식회의를 통해 진행되면서 차기협상의 주요쟁점이 이미 논의된 상태이다. 이에 예상되는 차기협상의 쟁점은 국내보조금 분야, 시장접근 분야,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국영무역, 수출보조금 분야, 수출제한 조치와 개도국 우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으로 집약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의 차기협상 관련 논의동향이나 대응전략을 볼 때 우리나라의 협상여건은 밝지 않다.

차기협상의 주도권을 쥐고있는 미국은 자국의 수출농산물에 대한 외국의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과 생산 및 수출보조금의 추가적인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어쨌거나 미국은 쌀, 콩, 닭고기, 가공농산물 등 자국의 경쟁력이 강한 품목에 대해 해외시장개방 확대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간에 다소 이견이 있으나, 차기협상의 목표를 수출보조금의 대폭감축 반대, 가격지지정책의 축소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소득보상제도(블루박스, Blue Box) 유지, 특별긴급구제조치 유지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최근 쌀 관세화 유예조치를 포기하고 쌀 이외의 분야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며, FTU 및 식량수입국들과 연대하여 차기협상에서 농업의 다면적 기능과 식량안전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은대지역 농산물 수출국으로 구성된 케언즈 그룹은 수출보조의 철폐, 관세 및 국내보조의 대폭적인 삭감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농업부문의 추가적인 무역자유화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UR협상 당시 기초농산물의 관세상당치, 관세율 커터제, 부과금설정 권한을 농치는 등 각종 보호장치를 얻는데 실패하였으며, 1994년 국가별 이행계획서 제출시 수정의 기회조차 놓쳤다. 지난 96년에는 OECD 가입으로 인해 농업분야의 각종 경제, 통상분야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우대조치에 대한 선진국의 이의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OECD는 한국농업정책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의 일체의 직간접 농업보호장치, 시장보호장치, 유통가공단계의 소비자보조부문에 이르기까지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줄여나가야 할 것을 권고하는 등 차기농산물 협상의 여건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차기농산물 협상에서 지역적 특수성에 적합한 식량안보 전략 유지의 필요성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

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차기협상에서의 대응목표

우리나라는 UR협정 이행에 따라 농업부문에 대한 국내보조금 감축약속에 의해 정부의 쌀수매가격이 거의 동결되고 수매량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또한 시장개방 약속에 의해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수입이 자유화되었다. 결국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하락과 생산감소로 국내 식량자급률이 현재 25.7% (쌀제외하면 4.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차기협상에서의 대응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식량자급과 농가소득지지, 지속발전가능한 농업기반 마련을 위해 협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① 쌀 관세화 유예조치의 유지

현재 일본이 쌀을 관세화하여 개방하기로 결정하면서 쌀 관세화 예외조치를 적용받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케언즈 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관세화 유예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부속서 5를 폐지하자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제 쌀 재협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율이 4.5%밖에 안되는 만성적인 식량수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쌀마저 개방하게 되면 식량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쌀의 재고 문제가 없고 수급조절도 용이한 상황이므로 쌀을 관세화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요국과의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식량수입국으로서의 식량안보를 위해 쌀 관세화 유예조항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 개도국 지위의 유지

개도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시장개방폭이나 이행년도 등의 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것으로 차기협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차기협상에서 개도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최소허용보조 기준이 생산액의 10% 미만에서 5% 미만으로 인하되고 저소득 농가에 대한 투자재 보조 등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각 나라는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이나 국제경쟁력에 있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소농을 시장개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망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도국의 지위마저 상실하게 된다면 농업은 더 이상 직업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 한국농업의 영세성등을 근거로 개도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국내보조 감축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차기협상에서 국내보조 허용대상 정책의 축소와 기준강화가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고 생산제한하에 허용되었던 Blue Box(생산제한하에 직접지불, 청색조항)도 생산과 무역에 왜곡된다는 이유로 폐지가 검토될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UR협상이 타결된 이후 세계무역기구협정 이행문에서 생산과 소비, 무역에 대해 경제 적 왜곡이 적은 방식의 생산자 보조로서의 직접지불제 도입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선진국들은 UR협정에 따른 가격지지 정책의 축소 및 국내보조의 감축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조해 주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생산기반이나 경쟁 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WTO체제하에서 그나마 취할 수 있는 국내농업보조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우리농업의 여건상 농업정책을 완벽하게 생산과 연계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점과 개도국에 대해 허용 대상정책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④ 시장개방 및 관세의 최소화

농산물 수출국들은 시장경제원리를 강조하며 완전한 시장개방을 강조하고 있다. 차기협상에서도 자국의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에 대해 시장접근물량을 조건 없이 100% 수입할 것과 관세율을 감축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UR협상에서 곡물류, 축산물, 양념 채소류, 과일류 등 주요농산물 67개 품목의 현행시장접근 물량과 최소시장접근 물량에 대하여 관세할당제도의 도입을 인정받아 시행중에 있다. 그나마 고율관세는 시장개방으로부터 우리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농업의 취약한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시장개방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여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며,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는 것도 최근 실제 수입된 물량이 UR 이행계획서보 다 적었다는 점을 적용하여 최근의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다. 관세의 감축폭은 품목별 중요성을 감안하여 품목간 조정하도록하되 최대한 관세 감축폭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⑤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

나. 직접지불제도의 확대 실시

1) 배경

직접지불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생산자에 대해 직접 소득을 보조해주는 제도로서 가격지지 정책을 축 소하고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WTO 등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는 농업보조금 제도이다. UR협상 이후 국내보조 감축으로 농가소득 손실을 보상하고, 환경보호 등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 며, WTO체제 출범으로 인한 각국의 농정의 전환에 따른 대안으로 각국은 직접지불제도를 강화하는 추세 이다.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직진지불제 방식이 도입·실시되고 있으며, OECD회원국은 농업 예산의 평균 23%를 직불제에 할애하고 있다.

생산을 제한하거나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일정정도 허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식량자급 실현이나 우리나라의 농업여건상 실시하는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때 WTO 허용기준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직접지불제는 우리로서도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선진국들은 많은 경우 자국의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농업법 등의 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태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WTO의 시장개방 압력과 국내보조 감축 요구 등으로부터 농업과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기존의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영농규모화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에 집중됨으로써 규모화가 어려운 조건불리지역의 농민이나 대다수 중소농의 소득감소와 생산활동이 위축되었다.

따라서 계층별, 지역별, 품목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농가소득을 지지하고 식량자급 실현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직접지불제 확대실시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환경이나 국토보전과 같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농업생산력 구조상 여성의 역할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실현을 위해서 여성농민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밭작물에 대한 직접지불제 실시가 요구된다.

2) 확대실시 여건 및 전망

직접지불제는 다양한 실시방식이 있다. 품목별 가격정책을 통한 지원,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 환경농업 지원, 은퇴농가 지원, 재해보상 지원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97년부터 전업농 육성을 위해 쌀농가 중심으로 은퇴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 환경규제지역에 한하여 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부분적으로 도입·실시하고 있다.

물론 확대 실시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다. 현재의 농정의 목표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집중되어 있고 직불제를 실시하기 위한 재정부담, 행정기술상의 한계,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자급이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당분간 생산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문제 등이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업보조 감축→기초식량 재배농가의 소득 감소→재배면적의 감소→생산량 감소→식량위기라는 점이다. 이에 쌀을 포함한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접지불제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 직불제 확대실시 요구 목표

- ① 식량자급 실현을 위한 쌀 및 주요작물에 대한 직불제 실시
- ② 농가소득지지를 위한 다양한 가격지지 방식의 도입
- ③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 실시

3. 당면과제를 농활시기에 어떻게 결합시켜 나갈 것인가.

- 가. 충분히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선전, 교육)
- 나. 농-학간의 조직력을 최대한 집중한다.
- 다. 지역별 사안과 결합시킨다. (농학주체간의 긴밀한 사업공유 필요)
- 라. 하반기 투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지속적인 활동내용 확보)

'99 여름농활 여농반 지침서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1. 준비활동

1) 각 단위별 (군, 도, 전국) 여농-학연대추진회의(이하 여농학연추)를 적극적으로 조직한다.

- 여농학연추란 여성농민과 학생이 농활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만나고 목적 의식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책임의 장이며 이후 일상사업에서 농학연대의 내용과 방법을 내올 수 있도록 결합력을 높여내는 장치이다.
- 각 단위별 여성농민주체와 학생주체가 여농학연추를 구성하여 농활의 의의와 목표, 조직적 과제, 진행상황, 활동 내용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여 여성농민, 학생이 공동으로 농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체들의 조건이 여농학연추회의를 꾸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최소한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2) 여성농민반 주체를 준비하자

회의의 선결조건은 각 단위 주체 마련이다. 전국 - 도 - 군 - 면 - 마을까지 여농반 주체를 미리 세워 준비된 농활이 되도록 해야한다. 여학생회 간부들이 주축이 되어 여성농민반주체를 조직하고 역량이 부족한 경우라도 반드시 여농반 주체를 세워 농활을 통해 여성농민운동에 기여하고 여학생운동, 학생운동강화에 성과를 내올 수 있어야 한다.

3) 농활에 필요한 학습을 미리 하자

- 여성농민반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농민현실과 과제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 여성농민회의 중점과제를 숙지하고 지역별 중요사업이나 실천과제에 대해 미리 학습하고 교양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 농업, 농민문제의 본질과 중점과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다.
- * 농활기간에 농업, 농촌문제와 여성농민문제에 대한 연대활동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성실한 학습과 교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기능의 습득

- 문화활동에 필요한 여성농민노래, 민요,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풍물, 요가 등 여성농민정서에 맞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준비하자
- 전년 농활시 배웠던 노래와 놀이를 파악하고 새로운 것 준비하자.

5) 사전답사를 철저히 하자.

- 설문지를 활용하여 사전조사작업을 한다.
- 마을여성농민들의 분위기 파악
- 여성농민반에 필요한 기초지식
- 마을 여성농민의 수, 연령대, 문맹률, 자녀수, 주요관심사 등
- 여성농민의 주요노동과 일거리, 일과표
- 마을에서 주도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 파악
- 잘 모이는 그룹과 장소
- 부녀회, 여성농민회 활동여부
- 이전 농활 경험
- 마을 여성농민반 교육진행여부 파악

2. 본활동

1) 근로활동

- 근로활동시 작업태도는 분반활동에 성패를 좌우할 만큼 영향을 준다. 농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인 만큼 성실히 임하고 일만 하는 작업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마을 전체의 분위기, 의식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도로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 작업시 먼 거리에 있을 때는 노래를 부르며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한다. 이야기 주제는 일상적으로 사는 이야기 등 가벼운 주제가 좋다.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적절한 질문과 대답을 유도하는 진행의미를 발휘하자.

2) 여성농민반 활동(분반활동)

농활에서의 여성농민반 운영은 여성농민과 학생이 연대하는 장이다. 여성농민운동의 역량과 학생 모

두가 서로의 역량이 강화되고 조직적 성과를 작지만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조직적 관점을 가지고 연대하는 활동의 장이다.

① 여성농민반 명칭의 의미

부녀반으로 명명되었던 '89년 이후 여성농민의 계급성과 자주적 진출에 주목하면서 여성농민과 학생들이 만나는 여성농민반 활동을 보다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여성농민반으로 개칭

② 여성농민의 특성

- 농활기간 중 가장 빈번히 만나는 사람이 여성농민이다.
- 어머니의 품성을 지닌 여성농민들이 학생들에게 가장 호의적이다.
- 모임, 행사에 적극적이므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 여성농민이 여성농민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하는 조직의 주인이며 대상이므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세워내기 위해 조직화가 필요하다.

③ 홍보

근로시 분반활동을 안내하고 부녀회장님을 통한 분반 전 마을 방송을 통해 전체적으로 알리고 마을 게시판안내, 호별방문 등 사전작업을 철저히 하자.

전체모임을 자주 갖지 못할 상황에서는 호별방문을 통해 인사하고 조사작업, 분반활동준비작업(분반활동에 대한 선전)을 하여 몇 차례의 전체모임을 내용 있게 가질 수 있도록 한다.

④ 여농반 운영

- 미리 준비한 일정표를 최대한 활용한다.
- 마을 주민 호응이 없으면 전체모임을 1-2 회로하고 호별방문을 하되 조사활동이나 선전, 홍보활동, 이야기 꺼리를 준비하여 진행한다.
- 준비된 프로그램이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때는 즐겁게 노래부르기와 놀이, 여성농민들의 생활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분반활동을 진행한다.
- 하루교육의 날을 잡아 이날만은 여성농민들이 모임 수 있도록 하여 여성농민강사를 초빙하여 여성농민문제에 대한 교양의 시간을 갖는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홍보활동이 중요하며 마을 부녀회 또는 여성농민회 책임자를 만나 모임 내용을 미리 의논하고 간단한 것이라도 역할을 맡길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학생들의 여성농민문제에 대한 사전 학습이 꼭 필요하다.
- * 우천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여성농민을 모이시게 하거나 모인 곳으로 찾아간다. 우천시 필요한 예비프로그램을 준비해 간다.

⑤ 분야별 활동

- * 교육활동 : 지도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문제를 자각하고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한다.
- 방법 - 강연, 비디오, 전단, 소식지, 대자보 등을 통한 교육을 진행한다.

내용 - 여성농민문제, 여성농민운동, WTO재협상, 직접지불제,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정, 농가 부채, 농협개혁안, 농어촌학교 통폐합, 의료보험, 지역현안문제 등 마을실정에 맞는 주제 선정

* 선전활동 : 농활에 대한 여농의 관심을 높여내고 현정세, 농업·농민문제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 형성.

방법 - 교육내용을 대자보, 마을방송, 호별방문, 소식지 등을 이용하여 홍보한다.

* 문화활동 : 농민·학생이 서로의 생활적, 정서적, 문화적 차이를 놀이와 노래로 극복하고 보다 진솔하고 소박한 민족적, 농민적 정서를 함께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한다.

방법 - 마을 단합대회, 마을잔치, 문선대공연등

☆ 분반일지를 꼭 작성하고 마을부녀회장이나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연락처, 성함, 주요사항 등을 여성농민회에 알려주어 조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⑥ 평가활동

- 평가서는 매일 분반 활동일지 및 대원들과의 평가작업을 기반으로 작성한다.
- 작성된 평가서는 여성농민조직 또는 중앙주체에 전달하여 이후 조직사업에 활용하도록 한다.
- 농활기간 중 하루를 잡아 마을주체 전체와 여성농민회가 만나 중간평가를 한다.
- 농활이 끝나면 군·도여농학 연추를 소집하여 농활전체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농활을 준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평가의 주체
 - ◇ 여성농민반 자체 평가
 - ◇ 여성농민회 자체 평가
 - ◇ 여농과 학생주체의 공동평가 및 군농학연추에서의 평가
- 평가의 내용
 - ◇ 준비와 본활동에 대한 평가 및 목표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
 - ◇ 여농학연추에 대한 평가
 - ◇ 각 마을 상황에 대한 점검
 - ◇주체들의 성취감과 개인소감

3. 후속활동

- 여성농민주체와 공동평가를 하고 후속활동의 방향을 세운다.
- 농활을 통해 파악된 적극적인 여성농민을 소개, 연결시켜 주어 조직적 성과를 주체적으로 남기자.
- 마을대중과 편지 및 전화 연락하기, 마을방문 등 이후 활동의 끈을 가져 가을농활 겨울농활로 이어지는 지속적 농·학 연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면·군단위로 발굴된 주체들과 여농활동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친숙해지기 위한 단합대회나 수련회에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자.
- 농활 후 농활지역 여성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 보내기 활동을 하자.

4. 생활수칙

1) 자세

- 농민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가진다.
- 농민들을 대상화시키지 말자.
- 노동을 통한 자기 스스로 자신감을 얻는다.
- 장기간의 합숙과 힘든 육체적 노동 속에서도 끈기와 낙관적 태도를 갖는다.
- 안일하고 낭만적인 감상주의적 태도를 버린다.
- 농활기간 중 여성농민문제, 농업·농민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고민하고 알려는 노력을 한다.

2) 생활수칙

- 화려하지 않고 활동과 세탁이 간편한 옷과 신발 준비
- 단정한 머리
- 식사는 최소한의 인원수로 준비하고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시작과 끝은 모두 함께 하도록 한다.
- 술은 취하지 않도록 하고 담배는 주의한다.
- 주변을 늘 청결하게 정리하고 농활을 마치고 돌아갈 때 정리정돈을 잘한다.
- 마을 어른을 만날 때 인사 잘 하기
- 여학생들은 특히 밤에 혼자 다니지 않는다.
- 남·녀관계를 주의한다.

- 책임자의 지시에 잘 따르도록 하고 대원들간에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낙오자가 없도록 한다.
- 문제가 발생하였을때는 마을주체나 여성농민회에 즉각 알린다.

★ 농활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급단위의 주체를 올바르게 세우고 농활 학교를 잘 조직하여 분반대원들에 대한 충분한 교양을 진행하고 농활의 목표와 과제를 잘 설정하여 성실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